

남북 부동산켜 안고 울음바다 “꼭 다시 만나”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작별

손편지 쓰고 사진 출력해 선물 버스 출발시간 잘못 안 선수들 두 시간 전부터 배웅 나와 머리 감дук “슬픈 감정 드는 게 “단일팀 특별했다는 느낌”

“아프지 말고 우리 꼭 다시 만나”, “몸 조심하고, 나중에 봐”

26일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마지막 날은 온통 울음바다였다. 남북한 선수들은 부동산켜안고 쉽게 떨어질 줄 몰랐다.

북한 선수 12명이 탄 버스가 출발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우리 선수도 여럿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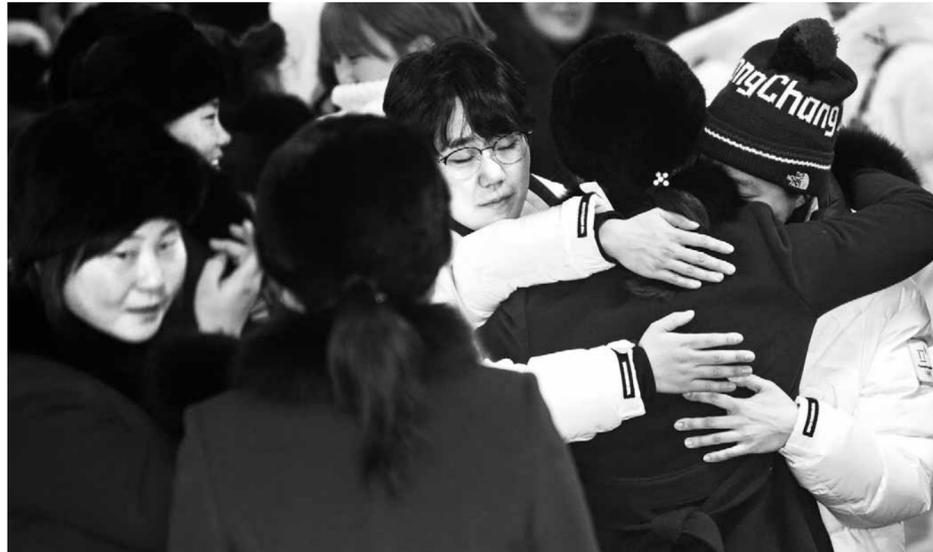
지난달 25일 북한 선수단 15명(선수 12명, 감독 1명, 보조인력 2명)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도착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딘 단일팀에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단일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비록 5전 전패에 그쳤지만, 하나가 돼 투혼을 펼치던 모습은 전 세계에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20일 스웨덴과 7~8위전을 끝으로 모든 경기를 마친 남북 선수 35명(한국 23명, 북한 12명)은 전날 폐회식에 함께 참석한 뒤 이날 눈물의 이별을 했다.

강릉선수촌에서 북한 선수단의 출발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었다. 원래 오전 5시 30분에서 7시 30분으로 늦춰진 것이었으나 이를 몰랐던 일부 우리 선수들은 5시부터 강릉선수촌 출입구인 웰컴 센터에 나와 있었다.

7시를 전후로는 한수진, 조수지, 임대널, 이연정, 최지연, 김희원, 한도희, 조미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전 강릉 올림픽 선수촌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팀 선수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 김세린, 이은지 등 마중 나온 우리 선수들이 10여 명으로 늘어났다. 7시 30분에 맞춰 새러 머리 감дук과 김도운·레베카 베이커 코치도 모습을 드러냈다.

7시 45분께 원길우 북한 선수단장을 선두로 북한 선수들이 웰컴 센터에 등장했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1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럽대옥-김주식 등이 앞에 섰고, 그 뒤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뒤따랐다. 함께한 시간은 한 달 남짓이지만 그동안 같이 등뜰던 남북 선수들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모두 눈물을 흘렸다.

포옹하고 격려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

약하는 사이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북한 박철호 감독도 머리 감дук과 포옹했다. 북한 선수들이 눈물을 닦아내며 버스에 올라타자 한국 선수들도 버스 창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북한 선수가 버스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자 그쪽으로 한국 선수들이 달려가 손을 맞잡았다. 버스가 떠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최지연은 “다들 정이 많이 들어서 보고 싶을 거라고,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보자고 말했다”며 “앞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북측 선수 12명에게 한 명씩 손편지를 쓰고, 함께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선물했다. 북측 선수들은 ‘평양냉면 먹으러 꼭 평양으로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단일팀을 지휘한 머리 감дук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

머리 감дук은 “3주 정도밖에 안 지냈는데, 이런 슬픈 감정이 드는 걸 보면 단일팀이 정말 특별했다고 느낀다”고 했다.

원길우 북한선수단장은 버스 오르기 전 “자, 안녕히들 계십시오”라며 손을 흔들었다. 원 단장은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상생 제2남도학숙 오늘 개관식

광주·전남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이 개관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6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학생·학부모, 향우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남도학숙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남도학숙은 2016년 7월 공사에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1994년 개관한 제1남도학숙(동작관)이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부족한 상황에서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동협력 사업으로 2014년 10월부터 ‘제2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해 왔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지하 1층, 지상 총 규모(연면적 1만3717㎡),

총 604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다. 다목적실, 구내식당, 독서실, 세미나실, 헬스장, 노트북실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개관식은 집주인인 학생들이 손님을 초대해 소개하는 집들이 콘셉트로 사전 국악공연과 사회 등을 직접 진행하며, 남도학숙을 거쳐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도 참여해 제2남도학숙 개관을 축하할 계획이다.

17기(1994년 재사) 남도학숙 졸업생인 아버지 김문재 씨와 24기(2017년 재사) 입학생 아들 김규근 군이 1만1500여 명의 졸업생을 대신해 후배세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윤 시장과 이 권한대행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세계수영, 한반도 평화통일 초석 될 것”

윤장현 시장, 시청 앞 올림픽기·한반도기 하강식 참석

윤장현 시장은 26일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기와 한반도기 하강식에 참석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축제로 만들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말했다.

또 ‘평창에서 광주로’라는 메시지를 통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맞잡은 손은 전쟁의 위기를 떨쳐내고 화합과 연대, 평화의 씨를 틔웠다”면서 “평창에 쏟았던

지구촌 가족의 눈이 이제 광주로 향한다. 광주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고, 광주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시민의 열의를 담아 지난 9일 광주시청 국가계약대에 평창올림픽기와 한반도기를 계약했다. 광주시는 이날 내린 한반도기를 광주수영대회에서 남북평화의 다짐과 상징으로 삼기 위해 광주시청 1층 광주수영대회 홍보관에 전시·보관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영암 ‘오리 밀집 사육’ 입식 재개 발목

농민들 “한달간 AI 없어…입식 제한 즉각 해제” 시위

방역당국 “밀집지 농가 전수 검사 후 최종 소멸때 허용”

오리 주산지인 나주와 영암지역의 ‘오리 밀집 사육 방식’이 농가와 방역당국 모두의 입식 재개 발목을 잡고 있다.

사육 농민들은 ‘생존권’을 제기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입식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해 달라”며 삭발 시위를 벌였다.

반면 전남도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을 결정적 조치가 입식제한이었다”며 “검사 결과, AI 바이러스가 최종 소멸된 것을 확인한 뒤 입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오리협회 회원들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AI가 한 달 이상 발생하지 않아 방역 실시요령(SOP)에서 정한 이동제한 해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회 의도적으로 입식 검사를 지연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농가를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오리 휴지기제 시행, 입식 제한, 반입금지 조치 등으로 오리고기 생산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오리 산업 전체가 붕괴 위기에 빠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을 위한 방역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원들은 또 “정부는 지난 15년간 11차례 AI 발생을 겪고도 농가와 계열업

체를 옥죄는 규제만 강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은 내놓지 못했다”며 “뒤늦게 내놓은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진정한 방역 대책이 아닌데도 그 효과를 자화자찬하기에만 바쁘다”고 말했다.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부회장 등 5명은 규탄대회 중 삭발을 하며 오리 사육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리 농가들의 희생과 고충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AI가 다시 확산해서는 안된다”며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환경 검사를 마치고 입식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식제한 해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축사의 분변·면적 등 환경시료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가 최소 5일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나주와 영암지역 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밀집 사육이 이뤄지고 있는 탓에 검사를 마쳐도 순차적인 허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반경 10km내 농가 모두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주와 영암지역의 경우 전체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AI바이러스 검사를 마치고, 모든 농가에서 안전성이 확보돼야 입식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정욱기자 jwpark@

‘무인 운행 광주 지하철 2호선’ 오늘 토론회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26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광주NGO센터 자치회에서 ‘무인운영 광주 지하철 2호선 안전한다 - 안전과 편리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2018년 2월 도시교통공공성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광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지부 과장이 ‘2호선 모두에게 편리한가? 2호선의 BF(베리어프리, 무장애)인중 가능한가?’를, 장준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이 ‘2호선의 무인역사에서 유인역사로 운영 전환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작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안전과 마찬가지로 무인운전, 무인역사, 2량1편성 등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운영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나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무인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은 개통 이후 무인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최초의 무인역사, 무인승무 계획을 포기하고 1인 역사, 안전요원 탑승(3개월 한시) 등으로 개편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지분물건/문중산 특별우대!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오전·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 화요일 오전반: 2018. 3. 6.(화) 09:10 (총 6주) · 토요일 오전반: 2018. 3. 10.(토) 09:10 (총 6주)	· 월요일 오전반: 2018. 3. 5.(월) 09:10 (총 6주) · 금요일 오전반: 2018. 3. 9.(금) 09:10 (총 6주) · 토요일 오후반: 2018. 3. 10.(토) 14:10 (총 6주)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로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문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부동산 컨설팅과 재테크 실전과정

부동산경매/공매, 부실채권(NPL), 팽처리APT 등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가)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일 생활속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 강의기간: 3월~6월(15주) 매주 수요일 15시/19시
▶ 특별수강료: 20만원(선착순 50명 마감)
▶ 접수신청상담: 조선대 평생교육원 ☎(062)230-7700

무료 공개 강의

2018년 부동산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특강

일시: 조선대 평생교육원 3월 7일(수) 19시
장소: 평생원 강의실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